

초등학교 어린이 독서 증진 방안 연구

- 어린이도서를 학교 읽기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mo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Reading: Focusing on Utilizing Children's Books in Reading Lessons

김 영 석(Young-Seok Kim)*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독서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그 방안의 하나로 어린이도서를 국어과 읽기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 방안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초등학교 1, 2학년 1, 2학기 총 네 권의 국어과 읽기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고, 두 개의 초등학교에서 1, 2학년 읽기 수업을 참관하여 수업의 내용과 진행 방법을 조사하였다. 또한 영국과 미국 초등학교의 읽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조사하였다. 어린이도서를 초등학교 읽기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국어과의 궁극적인 목표에 잘 부합하고, 현재의 교과서 중심의 읽기 교육방법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영국에서도 이 방법을 무난히 잘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방법을 통한 읽기 교육은 복잡하지 않아 실제 적용가능성이 높다.

ABSTRACT

The main aim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ways of promoting elementary school children's reading. The study provides a feasibility analysis of utilizing children's books in reading lessons, which is proposed as one of the ways. The contents of the four reading textbooks for Year 1 and 2 in Korea were analyzed and it was examined what and how children learn in reading lessons. The contents and methods of reading lessons in the UK and the USA were also investigated. It is considered that utilizing children's books in reading lessons which is the proposed way for promoting children's reading corresponds well with the goal of the curriculum of Korean. There is a high feasibility of applying the way to elementary schools in Korea. This is because the way has more advantages than the present textbook based reading lessons and the way is well utilized in elementary schools in the UK.

키워드: 독서, 어린이 독서, 초등학교 읽기, 어린이도서
reading, children's reading, elementary school reading, children's book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yskim7@mju.ac.kr)
논문접수일자 : 2006년 5월 14일 논문심사일자 : 2006년 5월 28일 게재확정일자 : 2006년 6월 8일

1. 머리말

어린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력이 뛰어나는데 어린이들의 이러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주고 개발 시켜주는 데는 독서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일찍부터 키워주고 개발시켜주는 것은 어린이들의 조기 지능개발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독서는 어린이들의 성장과정 속에서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시작된 어린이 독서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Bookstart이다. Bookstart는 유아 때부터 책에 친숙해짐으로써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하는 독서운동이다¹⁾. Bookstart 운동은 독서는 어려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또 어려서부터서도 잘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다.

의무교육과정으로서 초등학교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은 그 동안의 부모와 가정 중심의 유아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또한 이 시기에 어린이들은 체계적인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규범적인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어린이들의 독서습관과 관련해서도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초등학교를 시작하기 전 까지 유지해온 활발한 독서습관이 학교라는 틀에 의해서 깨어질 수 있고, 또한 이전까지 좋은 독서습관을 길러오지 못한 어린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이다. 초등학교 과정중의 어린이 독서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더 나아가서는 평생 동안의 학습 및 독서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정규과정으로서 초등학교를 시작함과 동시에 다른 어린이들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어린이들은 방과 후에 각종 학원에 다니면서 국·영·수 중심의 학업 성적을 높이는데 여념이 없다. 결과적으로 어린이들은 학교에서의 정규수업, 방과 후의 2-3개의 학원 수업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독서기회를 놓치고 있다. 문화관광부²⁾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독서량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1996년 초등학교생들의 연간 독서량은 28.2권이었으나 2004년 조사에서는 19.4권으로 9권 가까이 줄었다. 결국 현재와 같은 가정 및 교육환경 하에서는 더 이상 초등학교 학생들의 독서증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적으로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가는 어린이들의 독서증진을 위해서는 학교의 정규시간 내에서라도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별도의 교과목으로 '읽기'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읽기' 과목을 잘 활용한다면 어린이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주고 자연스럽게 독서습관을 길러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읽기' 과목을

1) 김영석, 2004, 영국 북스타트 운동의 의의와 그 추진 현황.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291-313.

2) 문화관광부, 한국출판연구소, 2004. 『2004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서울: 문화관광부.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어린이도서를 '읽기' 과목 수업에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독서증진을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독서량이 외국 어린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지난 십여 년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독서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어린이들의 독서증진을 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국어과 읽기 수업에 어린이도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 방안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어린이들의 독서증진을 위해 어린이도서를 초등학교 국어과 읽기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읽기 수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읽기 수업은 학년에 따라서 수업 내용은 다르지만 정해진 한 종의 국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읽기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 학

년의 읽기 수업 내용을 분석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최초로 체계적인 읽기 지도를 받는 시기인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어린이도서를 초등학교 1, 2학년 읽기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1, 2학년의 국어과 중에서 읽기과목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 실제로 읽기 수업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개의 초등학교에서 1, 2, 3³⁾학년의 읽기 수업을 직접 참관하여 관찰하였다.

한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필자가 영국에서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본 경험이 있어 영국 초등학교의 읽기 수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문헌조사를 통해서 미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읽기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살펴보았다.

3.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읽기교육

3.1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 방식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읽기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전반적인 교육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⁴⁾ 그리고 외국⁵⁾의 학교와는 달리 국정 교과서⁶⁾ 제도 즉, 국가가 개발한 1종의 교과서

3)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읽기 수업 참관이 곤란하다고 하여 대신에 3학년 읽기수업을 참관하였다.

4)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는 검인정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

5) 영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교과서가 없고,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와 같이 검인정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

6) 일부 검인정 교과서가 있기는 하지만 국어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라고 한다.

를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가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주관 하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편찬한 교과용 도서를 매 학기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교과용 도서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어린이도서를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의 읽기 과목을 포함한 국어과의 교육목표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2 우리나라 초등학교 국어교육 목표와 교과서

일반적으로 국어학자들은 초등학교 국어과를 '도구 교과'의 성격이 있는 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어과를 '도구 교과'로 보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하나는 국어과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른 교과와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이 관점은 읽기를 포함한 국어과의 기본 학습 목표를 글자 읽기(decoding)와 생각을 글자로 옮겨 쓰는 글자 쓰기(transcribing)와 같은 문자의 단순 번역기능의 숙달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⁷⁾ 일부의 견해처럼 읽기를 포함한 국어과의 최종 목표가 문자의 단순 번역기능에 있다면 현재와 같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읽기교육이 더 타당할 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기간 동안 초등학생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길러주어야 고학년이 되어서 수

업을 잘 이해 할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도 절대적인 진리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국의 경우는 교과서 없이도 어린이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잘 길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번째 관점과는 달리 우리나라 국어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린이들의 단순한 읽고 쓰는 능력의 배양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국어과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본 문자교육에 국한한다면 문자교육이 어느 단계에 도달한 3학년 이후에는 국어 교과가 존립해야 할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⁸⁾ 즉, 읽고 쓰는 능력이 어느 단계에 도달한 3학년 이후에도 국어과는 존재하는데, 이것은 국어과의 교육에는 또 다른 목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국어과의 또 다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두 번째 관점이다.

국어과를 '도구 교과'로 보는 두 번째 관점은 국어교육의 최종 목표가 '학습자에게 사고(의미)를 언어로 표현하고, 또 언어를 통해 사고(의미)를 이해하는 고등 정신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데 있다'⁹⁾고 보는 것이다. 즉, 국어교육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가치로운 삶의 영위에 필요한 지식의 획득을 통해서 지적 성장을 유도하고 지식의 생산 능력을 길러주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 근거할 경우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국어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여러 가지 채택 가능한 교육 방법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우리의 국어과의

7)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2005.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1-1』, 서울: 교학사.

8)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2005.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1-1』, 서울: 교학사.

9)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2005. *ibid.*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교과서 교육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의 국어과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교과서 사용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채택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국의 초등학교가 교과서를 교실 수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어린이도서를 활용한 읽기교육을 국어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채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국어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어과의 최종 목표가 '인간의 가치로운 삶의 영위에 필요한 지식의 획득을 통한 지적성장과 지식의 생산 능력 신장'이라고 할 때 어린이들은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다양한 책을 접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도서를 활용한 읽기 수업은 교과서를 이용한 방법보다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독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읽기 수업과 독서가 동일시되는 과정 속에서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를 갖게 되고 이것은 어린이 독서 습관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조복완¹⁰⁾ 교사도 초등학교 국어교육에서 독서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그는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 사용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를 위해서는 올바른 독서지도가 국어과 교육의 핵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읽기를 포함한 국어과목의 특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어린이도서를 읽기 수업에 활용해서도 국어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초등학교 국어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년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저(1-3)학년의 경우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고(4-6)학년의 경우 '말하기·듣기·쓰기'와 '읽기'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읽기 과목의 경우 1학년에서 6학년 까지 별도의 영역으로 남아 그 중용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성욱¹¹⁾ 교사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교과서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였다. 국가가 마련한 전국 단위의 통일된 교육과정과 이러한 교육과정과 실제 교수·학습 과정을 연결하여 주는 매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교과서였다. 이 말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은 교과서의 사용이었고 교과서의 역할은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교과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중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성욱 교사의 아래 말은 이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교실의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교과서를 가르친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교과서의 영

10) 조복완. 독서활동 지도 사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독서시간. [online]. <<http://www.mpe.go.kr>> [cited. 2006.4.13]

11) 고성욱. 2006. 특별기획: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과정. 『교과서연구』, 44호. [online]. <<http://www.ktrf.re.kr/journal/45/article5.htm>> [cited. 2006.4.12]

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다. 이런 점은 교실 수업의 이상적인 구현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이 19세기 후반에 시작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교과서 없는 교실 수업을 한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3.3 초등학교 1, 2학년 읽기 교과서의 내용분석

초등학교 1, 2학년 국어 과목에 '읽기' 교과서가 있다는 것은 읽기교육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 동안 읽기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 2학년의 1, 2학기 총 4권의 읽기 교과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2학년의 총 4권의 읽기 교과서는 학년과 학기에 구분 없이 똑같은 서문을 가지고 있고 각 교과서의 내용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국어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다섯 마당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마당은 '마당 도입' → '소단원1'과 '소단원2' → '한 걸음 더' → '쉽터' 순으로 구성하여 목표 중심의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어 공부를 돕기 위하여 교과서 끝 부분에 '한 학기를 마치며'를 실었습니다.

각 서문이 밝힌 읽기교과서의 기본 구성은 1,

2학년 그리고 1, 2학기 동일하다. 각 서문은 읽기 교과서가 크게 다섯 마당,¹²⁾ 즉 다섯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1학년 1학기 읽기교과서의 경우 서문의 설명과는 달리 네 마당(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마도 이 것은 교과서 구성을 확실히 편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일 것이라 생각된다. 즉 학년 혹은 학기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두고 교과서의 구성을 편성하였다면 당연히 각 교과서의 서문도 차이가 있을 것을 인식하고 다른 서문을 넣었을 것이다. 그러나 1, 2학년 그리고 1, 2학기 교과서의 구성이 똑같이 다섯 마당 그리고 각 마당의 하부 구성 또한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동일하게 '마당 도입' → '소단원1'과 '소단원2' → '한 걸음 더' → '쉽터' 그리고 '한 학기를 마치며' 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서문을 넣었던 것 같다.

각 교과서의 서문은 또 다섯 마당의 하부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하부 구성을 소개하는 서문의 문체로 보아 이 교과서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이들에게 이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듯하다. 그러나 이 서문을 읽어본 필자는 과연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이들이 이 서문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문이 소개하고 있는 다섯 마당을 이루고 있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마당 도입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마당 도입:(각 교과서의) 왼쪽 면에는 마당의 이름과 마당에서 학습할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나 그림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오른

12) 단락, 장, chapter의 순 우리말.

쪽 면에는 마당의 학습 목표와 마당에서 학습할 내용을 글이나 그림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당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즉, 마당 도입 부분에서는 두 쪽에 걸쳐 각 마당의 이름, 학습목표, 그리고 마당에서 학습할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나 그림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마당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를 미리 생각해 보게 하였다.

두 번째 구성내용은 소단원1, 2이다. 교과서의 서문은 소단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각 소단원에는 소단원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원리 학습’과 익힌 원리를 활용해 볼 수 있는 ‘적용 학습’ 과제가 있습니다. 학습활동을 하는 동안 의견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면서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경험을 쌓아 가도록 하세요.

읽기교과서를 가지고 실제로 글을 읽고, 읽기와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이 이 소단원에서 이루어진다. ‘원리 학습’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에 실린 대화, 시 그리고 짧은 글을 읽고 교과서가 제시

한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해답을 찾는 것을 배운다. ‘적용 학습’은 ‘원리학습’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을 좀더 긴 글이나 시를 읽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교과서가 제시한 좀더 다양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이다.

한편 어린이들은 다섯 개 마당에서 읽기와 관련된 각각 다른 내용을 학습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다.

위의 다섯 개 마당의 학습 내용은 대체로 글을 읽고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한 내용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어린이들은 이들 과정을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리학습’과 ‘적용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은 어린이들에게 독서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결과적으로 일상 생활속에서 효율적인 독서를 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학습과 훈련과정이 자연스럽게 못하고 그 학습 방법이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듯 하다. 예를 들면 ‘원리 학습’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교과서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교과서가 의도하는 방법대로 생각하게끔 학습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위의 표 1에 나타난 1학년 2학기 넷째 마당의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

(표 1) 1학년 1, 2학기 읽기 학습 내용

마당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첫째	기초적인 읽기와 글자의 받침 이해. 바른 자세로 글 읽기.	시나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을 표현 하는 법
둘째	흥내 내는 말 즉, 의성어 및 의태어	글쓴이나 인물의 생각이 잘 드러난 부분을 찾고,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
셋째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이해하는 법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한 말을 찾고, 느낌을 살려 읽는 법
넷째	문장 부호 및 띄어 읽기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아내는 법
다섯째	(없음)	글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 법

인지 알아봅시다' 단원이다. 교과서는 먼저 과제를 제시하고 짧은 글을 소개한다. 교과서는 이미 교과서가 제시한 과제의 해답을 글에 표시를 해두고, 그 부분이 이 글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읽기교육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문제 풀이식 독서교육을 학습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읽기교육은 자연스러운 독서가 아닌 시험 준비형 독서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읽기, 즉 독서 그 자체로서의 즐거움 보다는 해답을 찾아가며 읽어야 하는 부담을 갖고 독서를 하게끔 만든다. 둘째, 어린이들의 사고를 획일화 시킨다. 즉,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을 무시하고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제시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요하면서 어린이들의 사고를 획일화 시킨다. 아무리 짧은 글이나 시를 읽고 서도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감정 또한 다를 수 있다. 읽기를 포함한 국어과의 궁극적인 목표가 '학습자에게 사고(의미)를 언어로 표현하고, 또 언어를 통해 사고(의미)를 이해하는 고등 정신 능력을 신장시켜주는데 있다'면 현재의 교과서 학습이 제시하는 글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학습 행위

보다는 그 글을 읽고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학습 행위가 더 중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어과의 목표를 달성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똑같은 글을 읽고 똑같은 사고를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책을 읽고 다른 사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표 1,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2학년의 읽기 학습의 일부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또 2학년의 경우 1, 2학기의 읽기 학습의 일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학습 목표 배열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읽기교육을 시킨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이론 학습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어린이들에게 읽기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 수 있다.

1, 2학년의 1학기 첫째 마당에서는 학기 초라는 상황에 맞춰 올바른 자세로 글 읽기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 교과서를 이용한 이론수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 2학년 다섯째 마당의 '글을 실감나게 읽기'나 셋째 마당의 '글을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기'는 교과서 없이도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읽기 교과서가 이러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읽기교육이 얼마나

(표 2) 2학년 1, 2학기 읽기 학습 내용

마당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첫째	글을 읽고, 느낌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기 바른 자세로 책 읽기.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는 법
둘째	읽기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글 읽기	이야기를 읽고,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기
셋째	표현이나 생각의 재미를 느끼며 시와 이야기 읽기	글을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기. 글쓴이나 인물의 의견을 생각하며 글을 읽기
넷째	가리키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생각하며 글 읽기.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말 하는 법	시나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기
다섯째	시나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기	글을 실감나게 읽기

이론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위의 학습 내용은 어린이도서를 활용하여서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 즉, 교사는 수업시간에 어린이들에게 각자 본인이 읽고 있는 책의 글을 실감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읽도록 요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교정해주면 될 것이다.

3.4 읽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읽기교육의 문제점

현행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읽기교육의 문제점은 읽기교육과 독서를 구분시킨다는 점이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읽기교육은 의미가 있지만 읽기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습자에게 사고(의미)를 언어로 표현하고, 또 언어를 통해 사고(의미)를 이해하는 고등 정신 능력을 신장시켜주는데 있다'라고 할 때 과연 읽기교육이 어린이들의 독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그 동안의 읽기교육이 어린이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렸던게 사실인 것 같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초등학교 국어교사용 지도서는 최근까지의 읽기교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동안은 단순히 학습자들에게 책을 읽도록 권하고 책을 읽고 난 후에 독후감을 쓰라고 한 것이 독서 지도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식의 지도는 자칫 독서 지도에 대한 그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등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¹³⁾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경우 인지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읽기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읽기교육을 하나의 교육으로만 인식하도록 만든다. 즉,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읽기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상 생활 속의 올바른 독서 증진을 위한 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스펀지처럼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어린학생들에게 읽기 수업을 어린이도서를 활용해서 함으로써 읽기교육이 바로 독서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교실에서의 읽기 수업이 독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읽기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은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조기교육 열풍에 따라 일찍부터 한글을 터득하고 동화책을 읽기 시작한 어린이들은 다른 또래의 아이들보다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앞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린이들조차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준의 교과서를 가지고 읽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읽기 수업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어린이들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외국 초등학교의 읽기교육

4.1 영국 초등학교의 읽기교육

영국 초등학교에서의 읽기교육에 대해서 언

13)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2005.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1-1』, 서울: 교학사.

급하기 전에 먼저 전반적인 교육방식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초등학교에는 우리나라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 없다.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교과용도서가 제작되지도 않고 무상으로 제공되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영국 초등학교의 교실에서는 교과서 없이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은 한국교원대학교 함수곤¹⁴⁾ 교수가 런던대학교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영국 공립초등학교 교사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잘 확인할 수 있다. 영국 교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영국에는 따로 학생용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교사가 교육과정을 잘 구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자신이 구성한 교육과정대로 수업하는데 필요한 교재와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영국 초등학교의 모든 과목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교과서가 없다. 따라서 읽기과목에도 교과서는 없고 그 대신에 읽기교육은 일반 어린이도서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어린이도서를 활용한 읽기교육의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도서를 읽기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먼저 교사들은 학교도서관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어린이도서를 책의 내용, 어휘의 난이도, 삽화, 페이지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 분석하여 특정 학년의 어린이들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들을 선정한다.

둘째, 선정된 도서를 중심으로 하여 다시 위

의 평가 기준에 따라 도서의 등급을 세분화한다.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책등에 색레이블을 붙인다. 예를 들면, 수준이 가장 낮은 등급의 도서에서부터 가장 어려운, 높은 등급의 도서에 따라 순서대로 흰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빨간색, 군청색 그리고 검은색 레이블을 각각 붙인다.

셋째, 등급과 레이블이 부착된 도서를 한 반의 어린이 수에 따라 각 반에 배분하고 학급문고로 지정한다.

넷째, 학기 초 각 반의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독서기록철을 나누어주고 등하교시간에 흰색 레이블이 붙은 책부터 골라 학교와 집에서 읽도록 한다. 집에서는 부모님 앞에서 큰소리로 책을 읽도록 지도하고 이를 수행하면 부모에게 책을 큰소리로 읽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독서철에 책명을 적은 다음 부모의 사인을 받도록 한다.

다섯째, 교사나 보조교사 혹은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매일 아침 수업시간 전에 교실 뒤 혹은 도서관으로 몇 명의 어린이를 불러 독서철에 기록된 책 중 한 권을 가져와서 읽고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흰색레이블의 책을 잘 읽고 내용을 잘 이해하였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노란레이블)의 책을 읽어도 된다는 말을 해준다.

이렇게 하여 한 어린이가 일년 동안 기초단계의 책부터 고급단계의 책까지 읽을 수도록 교육시킨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이러한 국어교육의 일환으로서 읽기교육은 일반 어린이도서가 읽기교재가 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14) 함수곤. 2004. 현장교육: 영국의 선생님과 대화. 『교과서연구』. 43호. [online]. <<http://www.ktrf.re.kr>> [cited 2006.4.20]

게 책을 접하게 된다. 또 책 읽기가 수업이 아닌 일상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책 읽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고 책읽기가 즐거움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4.2 미국 초등학교의 읽기교육

미국의 초등학교 읽기교육에는 교과서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같고 영국과는 다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국정 검인을 받은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는 교과서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폭넓은 선택의 범위 안에서 각 초등학교는 학부모와 학교 선생님, 운영자가 주축이 된 자치의결회의를 열어 각 학년별로 사용하게 될 교과서를 선택하게 된다.'¹⁵⁾

한편, 미국 초등학교에서의 읽기교육의 경우 교과서가 있지만 영국의 경우처럼 어린이들의 수준에 따라 사용하는 읽기 책이 다르다. 박길자¹⁶⁾는 한국의 초등학교 교육을 미국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어린이가 같은 교과서를 배우며, 진도 맞추기에 급급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수준별 맞춤수업을 한다. 같은 반 친구여도, 노란 스쿨버스를 함께 타고, 같은 점심을 먹어도 읽는 책이 다르고 푸는 수학문제가 다르다.' 또한 미국에도 영국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별 읽기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다. 경성대 홍현주¹⁷⁾ 교수는 '(미국

의 어느 초등학교에는) 4만 4,000여권의 책을 A부터 Z까지 수준별로 분류해 학년별 권장도서를 만든 읽기지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였다.

영국과 미국 초등학교에서의 읽기교육이 우리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은 첫째, 다양한 일반 어린이도서들이 읽기 지도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읽기지도에 활용하기 위해 어린이도서들을 수준별로 매우 자세하게 세분화하고 있는 점이다.

5. 어린이도서를 초등학교 읽기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

어린이도서를 읽기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단계는 준비단계로 우리나라 전국 공통의 초등학교 1, 2학년의 읽기 커리큘럼을 짜는 것이다. 둘째는 이 커리큘럼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여 학교도서관에 비치하고, 다시 이들 도서를 학급문고로 지정하여 각 교실에 비치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업무가 완료되면 실제로 교실에서 교과서 없이 일반 어린이도서를 활용하여 읽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5.1 전국 공통의 표준 읽기 커리큘럼 유지

초등학교에서 교과서 대신에 어린이도서를

15) 최정선. 2004. 어린이 문학 교육의 방법론적 고찰 -미국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 한글』, 16(17): 91-111.

16) 박길자. 2005. 미국 초등생 창의적 책읽기 '1등나라의 힘'. 『어린이동아』, 2005.7.13. 1면.

17) 초교에 '1만권 도서관' 1인 매년 25권 읽어야. 『어린이동아』, 2005.7.13. 1면.

활용하여 읽기 수업을 진행 하더라도 읽기교육의 국가차원의 체계를 유지하고,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초등학교 읽기교육 커리큘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에도 교과서 없는 읽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국 표준 커리큘럼이 존재한다. 현재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읽기교육 방식 하에서도 전국 공통의 읽기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서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읽기교육에 현재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다. 다만, 현재의 커리큘럼 중 교과서 없는 읽기교육을 진행하기 곤란한 내용만 앞으로의 읽기 커리큘럼에서 뺀다거나하여 새롭게 재구성하면 될 것이다.

5.2 읽기 수업에 활용할 어린이도서 선정 절차 및 방법

전국 표준의 읽기 커리큘럼에 근거해서 읽기 수업에 활용할 어린이도서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단위 혹은 지역단위 혹은 학교단위의 도서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어린이도서 목록을 만든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많은 초등학교¹⁸⁾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단위의 필독도서목록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목포 부영초등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학년별로 연 30권 이상의 필독도서목록을 월별로 작성하여 어린이들의 독서증진에 활용하고 있

다¹⁹⁾. 각 학교는 이러한 목록을 참고하여 도서관 열람용으로 어린이도서를 구입하고 책의 내용과 어휘의 난이도 분석을 통해서 어린이도서를 수준별로 등급을 정한다. 각 반의 교사는 학생수에 근거해서 학급문고용 도서를 도서관에서 일괄 대출하여 학급문고를 만들고 정해진 수준에 따라 책등에 책의 수준을 나타내는 색레이블(coloured label)을 부착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초등학교, 예를 들면, 목포 부영초등학교, 목포 미향초등학교, 서울 신천초등학교 등에서 학급문고²⁰⁾를 만들어 학교에서의 어린이들의 독서증진에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학급문고처럼 문고용 도서를 수준별로 분류하고 수준에 따라 색레이블을 부착하는 등의 한 단계 발전된 개념의 학급문고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 어린이도서를 읽기 수업에 활용하는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좋은 도서를 선정하는 일이다. 즉, 수 없이 많은 어린이도서 중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 2학년 어린이 수준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도, 그렇다고 새로운 과제도 아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읽기교육 하에서도 어린이 수준에 맞는 글의 선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학년 1학기 교과서에는 16명의 저자(혹은 편저자)의 16편의 글(혹은 시)이, 1학년

18) 목포 부영초등학교, 목포 하당초등학교, 서울 신천초등학교.

19) 강혜순. 2004. 독서기록장 활용을 통한 독서능력 향상. [online]. <<http://www.mpe.go.kr>> [cited 2006.4.19].

20) 목포 부영초등학교에서는 도서관에서 구입한 필독도서를 학급에 대여하여 이 도서를 가지고 학급문고를 만들고 있으나 다른 학교에서는 도서의 내용이나 수준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임의로 가져온 도서들을 가지고 학급문고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2학기 교과서에는 13명의 저자(혹은 편저자)의 14편의 글(혹은 시)이, 2학년 1학기 교과서에는 14명의 저자(혹은 편저자)의 15편의 글(혹은 시 혹은 사진)이, 그리고 2학년 2학기 교과서에는 8명의 저자(혹은 편저자)의 8편의 글(혹은 시)이 도서 혹은 정기간행물에서 인용되어 실려 있다. 이 사실은 교과서의 집필진들에 의해서 이글(시 혹은 사진)들이 선정 작업을 거쳐 1, 2학년의 수준에 맞는다는 판단 하에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읽기수업에 활용할 어린이도서를 선정하는 작업은 현재의 교과서 집필진들이 글을 선정하는 작업과 같은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각종 단체 및 기관에서도 이미 학생 수준별 권장 도서목록을 발간 및 배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²¹⁾에서는 2003년도에 '학교도서관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과연계 도서목록' 초등학교용을 발간하였다. 이 목록은 초등학교 전 과목에 걸쳐 약 2,800건의 도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목록은 학교교사들이 쓴 서평까지도 실고 있다. 따라서 이 목록이 소개하는 도서들은 교사들이 검증을 하였기 때문에 학교의 읽기 수업에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대전광역시교육청²²⁾에서도 2003년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도서목록'을 발간하였는데 이 목록도 1만 여건의 어린이를 위한 도서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따라서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도서관 명예사서회'²³⁾가 학년별

권장도서목록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도서를 읽기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중요한 두 번째 과제가 될 수 있는 도서선정 작업은 현재도 이와 유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수행 될 수 있다. 사실, 읽기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선정하는 작업이야말로 읽기 수업에 어린이도서를 활용하는 방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업이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필자가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어린이도서를 활용한 읽기교육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5.3 어린이도서를 읽기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의 가능한 예

어린이도서를 활용하여 읽기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그 방법의 개발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현재의 읽기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가능한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읽기 교과서를 통해본 읽기교육의 첫 번째 교육 내용은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 즉 무엇에 대하여 쓴 글인지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글을 읽고 글의 핵심 내용을 간추리는 법을 익히는 것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처음 몇 주간의 전국 공통의 읽기 커리큘럼이 된다. 교과서 없는 읽기교육에서도 동일하게 현재의 커리큘럼에

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학교도서관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과연계 도서목록』,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2) 대전광역시교육청, 2003,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도서목록』,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23) 일부학교에서는 '도서명예교사회'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필자는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학교도서관 명예사서회'가 더 옳다고 생각하여 이 표현을 사용하였다.

근거해서 읽기교육을 시키면 된다. 구체적인 교육 방법은 전국의 모든 2학년 어린이들이 교과서에 실린 동일한 글을 읽고 이 커리큘럼을 학습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교실에 마련된 학급 문고의 도서 중 자신의 수준에 맞는 도서를 평상시에 읽고 그 도서를 중심으로 이 커리큘럼을 학습한다. 즉, 교사는 각각의 어린이들에게 가장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물어보고, 그 책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요구한다.

또, 현재 2학년 1학기 다섯째 마당의 학습 목표가 '시나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기'인데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혹은 평상시 읽은 도서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실감나게 읽도록 요구한다. 또 1학년 2학기 첫째 마당 그리고 2학년 2학기 넷째 마당의 학습 목표가 '시나 이야기를 읽고 느낀점을 표현하기'인데 이 시간에도 어린이들은 평상시에 자신들이 읽은 시나 이야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본인의 느낌을 말로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5.4 어린이도서를 읽기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의 장점

어린이도서를 초등학교 읽기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의 장점은 첫째,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읽기 지도에 사서 혹은 사서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참여시킬 수 있어 교사의 수업 부담을 일부분 덜어줄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보조교사 혹은 학부모가 학생들의 읽기 지도를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

도 '읽기지도 담당 교사'²⁴⁾가 있어 각 반 담임 교사의 수업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둘째, 수준별 교육이 가능해진다. 다른 과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셋째, 독서에 대한 동기 유발과 독서 습관 정착을 이끈다. 오랫동안 학교현장에서 독서교육을 지도하고 독서 관련 연구를 해온 김영자²⁵⁾ 교사는 '독서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기 유발과 책 읽는 습관 정착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독서지도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야할 과제'라고 하였다. 즉, 학생들의 독서증진을 위해서는 독서에 대한 동기 유발과 독서 습관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어린이도서를 활용한 읽기 수업은 지금까지 해온 교과서 중심의 읽기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책 읽기에 재미를 갖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활동의 반복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독서 습관을 길러줄 것이다.

어린이도서를 활용한 읽기교육은 위에 열거한 장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각각 625,876명과 657,384명에게 국어 읽기 교과서를 나누어주고 있다. 따라서 일반 어린이도서를 국어 읽기 교재로 활용한다면 정부는 연간 2,566,520권의 읽기교재를 집필, 출판, 배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

24) 초교에 '1만권 도서관' 1인 매년 25권 읽어야. 『어린이동아』, 2005.7.13, 1면.

25) 김영자. 2005. 『활동 중심의 독서교육』, 서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37쪽].

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읽기교재는 모든 학년에 걸쳐 무료 배포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어린이도서를 국어 읽기교재로 활용하는 제도를 모든 학년에 걸쳐 시행한다면 정부는 연간 약 770만권 이상의 읽기 교과서를 만들어 배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가 읽기 교과서를 출판하는데 드는 비용을 각 학교의 일반 어린이도서를 구입하는데 재투자 한다면 국내 어린이도서 출판 및 판매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것은 각 학교가 어린이도서를 읽기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린이도서를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학교는 추가적인 책 구입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정부는 읽기 교과서 제작 및 구입비용을 절감해서 이 비용을 각 학교의 책 구입비로 지원하면 될 것이다.

셋째, 교과서의 권수를 줄여 등학교 때 초등학생들의 책가방의 무게를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책가방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어느 한국의 어머니는 학생들의 책가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아! 사실, 지홍이, 찬홍이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아침에 그 아이들 가방 메고 학교에 가는 것 보면 참 안쓰러웠다. 지게꾼도 아닌데 등짐이 왜 그렇게 무거운가. 정말 발육이 걱정스러울 정도였다.'²⁶⁾

우리나라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이들은 한 학기 동안 9권의 교과서²⁷⁾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다. 따라서 신주머니, 준비물과 함께 서너 권의 책이 들어있는 무거운 가방을 메

고 등학교를 해야 한다. 무거운 책가방이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성장 발육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린이도서를 읽기교재로 활용하면 1권의 교과서가 없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린 학생들의 책가방의 무게가 줄어들 것이고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는 영국과 한국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낸 경험이 있다. 위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모든 과목에 걸쳐 수업이 교과서 없이 진행되고 또 각종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이며 필기도구까지 학교가 무상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의 빈 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닌다. 따라서 아이들의 등굣길은 가벼울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교과서, 각종 준비물, 필기도구가 든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한 손엔 신주머니 그리고 약기를 배우는 과외수업이 있는 날은 다른 손에 약기까지 들고 가는 고난의 등교를 한다.

한편 교육계에서도 어린학생들의 책가방의 무게를 줄여줄 의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현재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권 수 문제가 국어 교육계의 중요한 두 쟁점²⁸⁾중의 하나다.

6. 끝맺는 말

'독서는 개인의 자발적인 흥미와 즐거움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사고력이 길러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견인하여 주는

26) 미국초등학생들의 가방. [online]. [cited 2006.3.9]. <<http://www.freefeel.org/>>

27)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수학, 수학 익힘책, 생활의 길잡이,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28) 또 다른 쟁점은 '국정과 겸인정' 문제. 고성옥, 2005. *op. cit.*

일련의 지적 발전 과정이다.²⁹⁾ 따라서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이들에게 현재와 같은 교과서 중심의 획일적이며 주입식 읽기교육은 이들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책읽기 습관을 길러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독서에 대한 자발적인 흥미를 일깨워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읽기교육은 딱딱한 교과서 중심이 아닌 어린이도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도서를 활용한 읽기교육은 자연스러운 독서를 유도하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지속시켜 책읽기를 일상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사고력을 길러주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나 최근에 일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와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면 필자가 주장하는 교과서 없는 읽기교육은 당장 도입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³⁰⁾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일부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의 검인정 교과서 채택에 대해서 교사, 학부모, 교육종사자 등 많은 집단에서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높다고 한다. 특히, 국어과의 검인정화에 대한 반대의 비율이 다른 과목에 비해 훨씬 높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보수성향이 강해 단일 교과서 중심의 교육체제를 탈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인 교과서 다양화로 전환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 보다 한 단계 더 앞서는 교과서 없는 읽기교육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반대 의견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이고 독서를 통한 국민들의 지식정보 획득은 국가 경쟁

력의 핵심이 된다. 그러나 전 국민의 독서 활동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독서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한다. 따라서 성인들의 독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독서습관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를 갖게 유도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읽기 수업을 교과서가 아닌 일반 어린이도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교과서 없는 수업은 모든 과목 그리고 모든 국어과목에 적용하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독서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어과의 여러 분야 중에서 어린이들의 독서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읽기 과목에 한해서 시행하지는 것이다. 또한 이 교육방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영국의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육 방식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도 않다.

어린이도서를 활용한 읽기교육의 중요한 핵심이면서 가장 어려운 과정은 어린이수준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각 학년의 학기별로 10여명의 작가의 10여 편의 작품들이 선정되어 교과서에 실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가 및 작품 선정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현재 보다 조금 더 많은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는 일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 몇몇 지방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부모들이 학년별, 학기별 권장도서를 선정하여 목록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서지도구들을 잘 활용한다면 어린이 수준에

29) 최정선, 2004, *op. cit.*

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국정 교과서 검인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고성옥, 2006.에서 재인용

맞고, 읽기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도서들을 충분히 선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도서를 활용한 읽기교육은 학교 교수·학습의 핵심시설인 학교도서관의 활용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 그리고 질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혜순. 2004. 독서기록장 활용을 통한 독서능력 향상. [online]. [cited 2006. 4.19]. <<http://www.mpe.go.kr>>
- 고성욱. 2005. 특별기회: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 『교과서 연구』, 44호. [online]. [cited 2006.4.12]. <<http://www.ktrf.re.kr/journal/45/article5.htm>>
- 김영석. 2004. 영국 북스타트 운동의 의의와 그 추진 현황.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291-313.
- 김영석. 2006. 우리나라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 실태와 해결방안. KBS 1Radio, 생방송 일요일 2부, 시사초점 2부. 2006.4.30. 오후 4시: 21-30분.
- 김영자. 2005. 『활동 중심의 독서교육』. 서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대전광역시교육청. 2003.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도서목록』.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 문화관광부, 한국출판연구소. 2004. 『2004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서울: 문화관광부.
- 박길자. 2005. 미국 초등생 창의적 책읽기 '1등 나라의 힘'. 『어린이동아』. 2005.7.13. 1면.
- 송기호. 2003. 『학교도서관 이용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초교에 '1만권 도서관' 1인 매년 25권 읽어야. 『어린이동아』. 2005.7.13. 1면.
- 최정선. 2004. 어린이 문학 교육의 방법론적 고찰 -미국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 한글』. 16(17): 91-11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국어 읽기 1-1』. 서울: 교학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국어 읽기 1-2』. 서울: 교학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국어 읽기 2-1』. 서울: 교학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국어 읽기 2-2』. 서울: 교학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1-1』. 서울: 교학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1-2』. 서울: 교학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2-1』. 서울: 교학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2-2』. 서울: 교학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 『학교도서관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과연계 도서 목록』.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함수곤. 2004. 현장교육: 영국의 선생님과 대화.
『교과서연구』. 43호. [online]. [cited

2006. 4.20].
<<http://www.ktrf.re.kr/>>

K C I